

‘공장 풀가동·환율 효과’… 삼바, 상반기 영업이익 1조 돌파

2분기 매출 1.3조·영업익 5864억
상반기 누적 매출 2.6조, 28% 증가
대규모 투자에도 영업이익률 45%
5공장·美 록빌 하반기 실적 기여
2032년 생산능력 132만L로 확대

삼성바이오로직스가 1~4공장의 전면 가동과 우호적인 환율 환경에 힘입어 올해 상반기에도 압도적인 성장세를 이어갔다. 하반기 가동을 앞둔 신규 생산 시설 투자에 따른 고정비 선반영에도 40%대의 영업이익률을 기록하며 외형 성장과 내실을 모두 다졌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올해 2분기 연결 기준 매출 1조3209억원, 영업이익 5864억 원을 올렸다고 23일 밝혔다. 전년 동기 대비 매출은 30%, 영업이익은 23% 증가했다. 당기순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29% 늘어 4307억원이다.

이와 함께 올해 상반기 실적은 누적 매출 2조5780억원, 영업이익 1조1672억 원을 달성했다. 전년 동기 대비 매출은



삼성바이오로직스 4공장 전경.

/삼성바이오로직스

28%, 영업이익은 29% 커진 우상향 성장세다. 누적 당기순이익은 8999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35% 급증했다.

누적 영업이익률은 45.3% 수준이다. 전년 동기 45.1% 대비 0.2%p 상승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대규모 설비 투자가 진행될 때 수익성이 둔화하는 일반적인 제조업 흐름을 방어, 기존 사업의 호실적으로 초기 고정비를 상쇄했다는 분석을 내

놔다.

특히 삼성바이오로직스는 2분기 일부 생산 차질 요인에도 불구하고 하반기에는 국내 5공장 및 미국 록빌 시설의 매출 기여가 본격화되면서 올해 연간 매출 성장률 목표치(15~20%)의 최상단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실제로 글로벌 초격차 생산 역량 유지 및 지리적 영토 확장에 박차를 가한다는

방침이다. 올해 들어 미국 록빌 바이오의약품 생산시설을 다국적 제약사 글락소스미스클라인(GSK)로부터 인수해 첫 해외 생산 거점을 확보했다.

록빌 시설 인수로 삼성바이오로직스는 기존 송도 1~5공장에 구축한 78만 4000리터(L)의 생산능력에 6만 리터(L)를 추가, 총 84만 5000리터(L)에 달하는 생산 역량을 확보했다.

아울러 오는 2032년까지 제2바이오캠퍼스 내 6~8공장을 순차적으로 완공해 삼성바이오로직스 총 생산능력은 132만 4000리터(L)까지 늘어날 전망이다.

압도적인 생산 역량을 바탕으로 글로벌 수주 활동도 강화한다.

창립 이래 누적 수주 총액은 217억 달러 규모다. 위탁생산(CMO) 115건, 위탁개발(CDO) 176건 등을 기록한 가운데, 삼성바이오로직스는 글로벌 20위 빅파마 중심의 기존 고객층을 40위까지 확장하고 있다.

이를 위해 올해 3분기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에 유럽 세일즈 오피스를 신설한다. 2023년 미국 뉴저지, 2025년 일본 도쿄에

이어 현지 맞춤형 영업 전초기지를 추가하는 것이다. 바이오의약품 3대 핵심 시장으로 꼽히는 미국, 유럽, 아시아태평양 전역에서 파트너십을 다진다는 복안이다.

포트폴리오의 다각화 작업도 순항 중이다. 대표 품목인 항체 의약품을 넘어 최근 글로벌 펩타이드 위탁개발생산(CDMO) 기업인 ‘폴리펩타이드그룹’ 인수를 결정짓는 등 비만, 당뇨 등 차세대 치료제 시장에도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또 mRNA, 항체·약물 접합체(ADC) 등 첨단 의약품 부문에서도 역량을 고도화하고 있다. 해당 신규 모달리티 생산 시설은 제3 바이오캠퍼스를 중심으로 확충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올해 상반기 기준, 자산은 12조6526억원, 자본은 8조3619억원, 부채는 4조2907억원이다. 부채 비율은 51.3%, 차입금 비율은 11.5%로 안정적인 재무구조를 유지하고 있다.

/이청하 기자

mlee236@metroseoul.co.kr



나보타 불법 유통 차단 강화

대응계약, 정품 유통망 관리체계 정비
적발 업체 즉시 영구 거래중단 조치

대응계약이 보툴리눔 독신 ‘나보타’ 관리 체계를 통해 건전한 투약 환경을 조성하고 있다. 불법 유통을 차단하고 환자 안전은 높인다는 방침이다.

대응계약은 온·오프라인에서 나보타 정품 유통망을 강화한다고 23일 밝혔다.

특히 올해 1월부터는 불법 유통 적발 시 즉시 거래를 영구 중단하는 제도를 도입했다. 국내 병·의원 대상 안내문을 배포하고 불법 유통 방지를 위한 계약서 개정을 완료했다.

세계 각국의 규제기관과도 협력하고 있다. 무단 반출 적발 시, 제조번호 추적, 해당 의료기관 특정 후 즉시 거래 중단 등 규정에 따라 엄격하게 대응하고 있다.

대응계약에 따르면, 최근 들어 미국 식품의약품(FDA) 수입 거절 사례들이 확인되고 있다. 모니터링 결과, 이는 미국에서 허가를 받지 않은 불법 경로를 거친 제

품인 것으로 파악됐다.

대응계약 관계자는 “공식 수출 제품은 FDA 규정을 준수하므로 수입 거절 이력이 없다”며 “제품이 비정상적인 경로로 미국에 반입될 때 ‘영문 라벨 미가제’ 혹은 ‘NDA(신약허가신청) 미승인’ 등의 수입 거절 사유가 조화된다”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대응계약은 올해 초 보툴리눔 독신 불법 유통으로 미국 FDA의 경고서한을 받은 국내 업체 7곳도 한국의약품유통협회, 국민신문고, 국민권익위원회 등 3개 기관에 신고했다.

의약품 불법 유통은 약사법을 비롯한 여러 관계 법령에 따라 형사처벌 대상이다. 다만 현행 제도상 기업의 권한만으로는 위법 사실을 입증하는 데 현실적인 장벽이 존재한다. 관련 기관의 실질적인 조사 개시를 위해서는 불법 유통 업체의 명확한 범인명, 특정 시점의 제품 거래, 한국발 통관 및 발송 기록 등 구체적인 입증 자료가 요구되기 때문이다.

/이청하 기자

GS샵, 역시즌 패션 주문 375% 급증

5월~7월19일 주문액 190억

GS샵은 고물가 속 합리적인 소비를 추구하는 고객이 늘면서 역시즌·창고 할인 패션 행사가 호응을 얻고 있다고 23일 밝혔다.

최근 패션업계에서는 계절과 관계없이 할인 폭이 큰 시기를 활용해 의류를 구매하는 소비가 늘고 있다. 역시즌 행사와 창고 할인 등을 통해 겨울 의류를 미리 구매하는 수요가 확대되는 추세다.

GS샵에 따르면 올해 5월부터 7월 19일까지 진행한 역시즌 겨울 패션 행사 주문액은 19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행사 주문액(40억원)보다 375% 증가했다. 폭염이 이어지는 가운데서도 코트와 무스탕 등



GS샵이 20일 진행한 ‘SJ와니’ 창고 세일 방송 중 주문액이 14억 원을 기록했다. /GS샵

겨울 의류를 미리 구매하는 수요가 늘어난 영향으로 풀이된다.

브랜드별로는 ‘르네크루’, ‘SJ와니’, ‘조울’ 등 GS샵 자체 패션 브랜드가 주문 상위권을 차지했다.

/김서현 기자 seoh@

HLB이노베이션, 혈액암 신약 美 임상 확대

고용량 투여 안전성 확인

HLB이노베이션은 차세대 혈액암 CAR-T 후보물질 ‘SynKIR-310’의 미국 임상1상에서 더 높은 용량 구간의 안전성과 내약성을 평가하기 위해 용량군을 확대했다고 23일 밝혔다.

해당 임상은 재발성·불응성 B세포 비호지킨림프종 환자를 대상으로 진행되고 있다. 특히 기존 상업화된 CD19 CAR-T 치료 후 재발한 환자까지 포함해 치료 옵션이 극히 제한적인 환자군에서 SynKIR-310을 평가한다.

이번 용량 확대는 기존 CAR-T 치료제의 일반적인 투여 용량 범위를 넘어선 고용량 구간에서 이뤄졌다. 기존 CAR-T 치료제의 안전성을 능가할 수 있는 SynKIR-310 잠재력을 입증하는 것이 목표다. 임상2상 권장 용량 설정을 위한 임상 근거도 확보할 계획이다.

/이청하 기자

CAR-T 치료제는 투여 용량이 높아질수록 사이토카인방출증후군, 면역효과제 포연관 신경독성증후군 등 부작용 위험이 커진다는 한계점이 있다. 또 고용량 세포 투여를 위해서는 환자 T세포에 치료 유전자를 균일하고 정확하게 도입하는 고난도 기술이 필수적이다.

HLB이노베이션 관계자는 “용량 증량 설계는 미국 식품의약품(FDA)과 협의를 거쳤고 이는 SynKIR-310 약물 가치와 제조 기술력을 입증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HLB이노베이션은 지난 4월 미국에서 열린 세계적 암 학술대회 ‘AACR 2026’에서 ‘SynKIR-310’ 안전성과 초기 약물 효과에 대한 데이터를 공개했다. 임상1상 최저 용량 투여에서 70대 소포림프종 환자가 중증 사이토카인방출증후군, 신경독성증후군 없이 투여 28일 만에 완전관해에 도달했다.



연창환 라플레 대표(왼쪽)와 김재왕 지씨셀 대표(오른쪽)이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지씨셀

지씨셀

면역치료 예측 AI 개발

라플레와 5700건 처방데이터 분석

지씨셀은 라플레와 면역세포치료제 ‘이문셀엘씨주’ 치료 적합성 및 예후 예측을 위한 AI 개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협약의 목적은 라플레에서 개발하고 있는 ‘이문셀엘씨주’ 예후 예측 AI 프로그램 고도화와 실용화다.

라플레 협력 의료기관인 연창환병원은 지난 2005년부터 현재까지 약 5700건에 달하는 ‘이문셀엘씨주’ 처방 데이터를 보유하고 있다. 실제방데이터(RWD) 기반의 예측 모델을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라플레가 개발하는 프로그램은 면역세포치료를 통한 환자별 반응률을 예측해 최적의 치료 효과를 거둘 수 있는 환자를 선별하는 데 쓰인다.

/이청하 기자

지그재그, 동대문 ‘도매택’ 상품 수요 급증

인기 생산업체 거래액 30% 이상 증가

키카오스타일 지그재그에서 동대문 생산업체의 이른바 ‘도매택’ 상품 수요가 빠르게 늘고 있다고 23일 밝혔다. 도매택은 동대문 도매 상품을 뜻하는 말로, 대부분 일반 소비자가 아닌 소광물을 대상으로 유통된다. 최근에는 생산업체를 직접 찾아 상품을 구매하는 소비자가 증가하며 새로운 소비 트렌드로 자리 잡고 있다.

지그재그가 올해 상반기(1월 1일~6월 30일) 도매택 상품 판매 추이를 분석한 결과, 인기 생산업체의 제작 상품 거래액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0% 이상 증가했다. 별도의 소비자 판매 채널이 없는 도매 상품 특성상 이용자들이 지그재그에서 생산업체명을 직접 검색해 구매하는 사례가 늘어난 것으로 분석됐다.

검색량도 증가세를 보였다. 직장인특과

하객룩 등을 선보이는 ‘트버터’의 상반기 검색량은 전년 동기 대비 82% 증가해 약 30만 건을 기록했으며, 관련 상품 거래액은 50% 늘었다. 디테일을 강조한 디자인으로 알려진 ‘미엘’도 같은 기간 검색량 20만 건, 거래액 44% 증가를 기록했다.

여름 바수기에도 성장세는 이어졌다. 최근 한 달(6월 20일~7월 19일) 동안 파운더스의 검색량은 전년 동기 대비 259% 증가했고, 관련 상품 거래액은 282% 늘었다.

도매택 상품의 인기는 품질과 디자인 경쟁력을 갖춘 생산업체에 대한 소비자 관심이 높아진 영향으로 풀이된다.

구매 편의성도 높아졌다. 현재 지그재그에는 도매택 상품을 취급하는 소광물 200여 곳이 입점해 있으며, 생산업체명을 검색하면 여러 소광물의 상품을 한 번에 확인하고 판매처별 가격을 비교해 구매할 수 있다.

/김서현 기자

한국제약바이오협회

AI 신약개발 인재 양성

29일 비전공자 대상 입문특강 시작

한국제약바이오협회가 인공지능(AI) 신약개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전문 인력 양성에 나선다. 인공지능 신약개발 전 과정에 대해 단계별 교육을 순차적으로 진행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한국제약바이오협회 부설 AI신약연구원은 오는 29일 입문특강 ‘AI 신약개발 따라잡기’를 시작한다고 23일 밝혔다. ‘AI 신약개발 따라잡기’는 비전공자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AI 신약개발의 핵심 개념, 최신 기술 동향, 산업 활용 사례 등을 소개한다.

/이청하 기자